내 눈엔 그대뿐...
계란 책임평가사 서울지원 김영신 과장

고객홍보팀

"오늘도 출근과 함께 계란 집하장을 둘러보고 현장 작업자들의 업무 상태를 살펴본다. 선별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별기에 이상은 없는지, 계란 판정시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계란 작업장에 근무하는 평가사의 하루 일기다.

여기에 한 줄을 더해보자. "1991년 2월 1일 입사해 줄곧 축평원 평가사로서 생활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등급판정 현장을 떠난 적 없이 축산물과 함께한 25년이었다." 그리고 화룡점정, "2015년 우수직원상 수상자." 이쯤 되면 답이 보인다. 이번호 '우리, 만나볼란?'이 찾아간 사람, 서울지원 김영신 과장이다.

우수직원상을 수상한 얘기만 가지고도 족히 10분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가 끝이다. 사전조사도 생각처럼 수월치 않았기에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자 이 얘기 저 얘기 던져보지만 짧은 답변 일색, 강적이다.

본인의 이야기는 극히 삼가면서 "별 거 아닌 일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없어요."라고 말한다. 굉장히 쑥스러워 하며 과장된 자랑을 하는 것 같다며 몸을 뺀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애기, 심각하다고까지 할 계란의 시장 상황이 화두에 오르니 거침없다.

"요즘 출근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달걀시세 정보다. 평가사 입장에서야 계란 등급판정 신청서를 받아 등급판정을 해서 등급을 부여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업체나 축종 산업 환경과 그렇게 뚝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근무하는 축종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라 생각된다."

브레이크를 걸 순간을 잡기가 힘들 만큼 깊은 고뇌와 더불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 계란 전문가구나.", "계란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네." 생각하게 될 정도다. 그래서 당연하게 "계란 판정은 얼마나 오래하신 거예요?"라고 물었다. 답은 웬걸, "계란 판정? 양주 쪽 출장지로 약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지만 계란 쪽을 주로 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다만, 여기는 두 번째 근무죠."란다.

김영신 과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 1기로 기관이 처음 설립되고 기관 주요 사업들이 자리 잡는 과정을 모두 함께 했기에 애착도 크다. 오랜 근무기간 만큼 다양한 작업장을 거쳤는데 작업장 중에는 눈 오면 기차를 타고 철암역에 내려 검사관과 손잡고 30분 이상 걸어

들어갔었다던 태백 오지의 작업장처럼 없어진 곳도 있다. 어디든 그에게는 "근무 당시에야 힘든 작업장도 분명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재미있는 기억"이다.

활활판정 중인 김영신 과장

어두운 판정실에서 진행되는 투광판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처음이 쇠고기 등급제였고, 계란은 후발로 합류한 만큼 김영신 과장 역시 계란보다야 다른 축종의 판정 업무를 한 이력이 더 많다. 아니,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까지 근무한 작업장 중 계란 작업장은 두 번째 근무인 현 근무지 가농바이오(이하 가농)를 포함해 총 2곳, 근무횟수로는 3번뿐이다.

"현재 서울지원에서 유일한 계란작업장 상주 직원이다. 계란 판정에 있어서는 지원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지원에 계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연구와 공부가 계속 필요하다."

지금은 가농이 바뀌어 In-line 방식(생산지에서 내부 시설을 통해 바로 포장·가공지로 넘어오는 방식)인데다가 외부 계란 구입도 없고, 전자동으로 계란을 관리하고 있다지만 그가 이전에 근무할 때만해도 각 5만수짜리 계사(닭 사육시설)가 4동이라 계란의 동별 혼입도 우려되고 외부 구매도 있어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하고, 제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그때는 판정 장소와 생산 농장이 떨어져 있어 등급판정을 위한 샘플링 과정에 의도치 않게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당시 우리의 열혈 김 과장은 품질에 따른 계란 특성에 관해 연구해 혼입된 것을 잡아내는 쏠쏠한 재미를 누렸다. 아예 생산농장으로 쫓아가서 현장에서 바로 투광판정을 하기도 했다. 생산일에 따라 미세하게 발생하는 온도차를 이용해 어제 산란한 계란과 오늘 산란한 계란을 구분해내고 섞인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기도 했다. 그렇게 당시를 회고하는 김영신 과장의 입에서는 자부심에 찬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다.

"몇 년 만에 다시 가농에서 근무하게 되니 그 사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업무하기에 훨씬 편해졌지만 평가사 입장에서는 좀 게을러 진 것 같기도 하다. 정해진 틀 내에서 하게 되니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야 할 필요성은 없어진 셈이니까 말이다."

공부에 대한 아쉬움은 업무 안팎의 일들에 대해 연구하며 판정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으로 대신했다. 현장에서 농가와 바로 접하고 있는 평가사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자연히 찾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 과정에 근무지와의 상생을 추구한 결과, 지난해에는 다국적기업인 맥도날드가 등급란만을 납품 받는 것을 넘어 1' 계란을 이용다는 것을 홍보 전반에 내세우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는 기관명까지 분명히 밝혀 적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그에게는 '나는 별로 한 일 없다'는 쑥스러운 일일 뿐이다.

그런 그가 요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디 계란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계란가격이 정상화 되는 것. 너무 계란 얘기에 집중해 "개인적으로는 뭐 계획하는 바가 없나"고도 물어봤지만 너무도 건전하게 신앙생활 얘기 잠깐, 그리고 "퇴직 이후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크게 고민 안 하려 한다."는 한 마디 뿐. 계란이 아닌 다른 축종을 다룰 때는 어땠을지 추측하기도 힘들만큼 온전히 '계란맨'이었다. 책임평가사라는 호칭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등급정보